

##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에 나타난 기억의 탈영토화

김 찬 기\*  
(경희대학교)

황 수 현\*\*  
(경희대학교)

### ◆ 국문초록

칠레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1990)는 피노체트 독재체제가 종식된 직후 수립된 아일윈의 과도기적 민주정부가 안고 있는 첨예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나타난 개인 기억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 성고문을 받은 파울리나의 트라우마적 기억이 그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녀의 개인 기억이 집단 기억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고문 의사 로베르토의 진술을 통해 지배 기억의 담론을 들여다보고,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변호사 헤라르도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두 사람 간의 기억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알아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 투쟁 속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억의 탈영토화 개념이 이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과도기적 정의 실현의 핵심은 진실한 후회이며,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선결 조건임을 탐색하였다.

주제어 : 아리엘 도르프만, 죽음과 소녀, 기억과 역사, 트라우마적 기억, 후회의 정치, 기억의 탈영토화

\* 제1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억 담론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위안부와 국정교과서 등의 사안이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와 결부되어 점점 더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아공정 문제도 분쟁의 씨앗으로 대두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나치즘과 홀로코스트를 필두로 지난 역사에 대한 기억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역사와 관련된 기억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을 추구한 사안을 넘어 세계 시민의 문화와 삶의 일부에 편입되었다. 특히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기억 주체와 기억 방식에 대한 의제는 학계와 시민 사회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의제가 자연스럽게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 녹아들어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전쟁은 기억을 매개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기억 전쟁’ 혹은 ‘기억 투쟁’이다. 이는 국가와 민족,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다양한 기억 담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기억 관련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다뤄진다. 가령 독일에서 동서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 시대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자 세계 도처에서 유형 무형의 정치적·문화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공식 역사에 가려졌던 민간 기억도 각종 증언과 기록물로 부활하였는데, 이는 역사 기술이라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물이라기보다 경험기억을 근거로 생생하게 보존된 집단의식의 표상이거나 구술로 전해져 기억된 과거에 가깝다.

이런 측면에서 기억 담론의 등장은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과거사를 정리하는 민간 기억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억은 역사 연구의 전통적 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안으로 기억 연구를 등판시킨다. 가해자와 희생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고소(告訴)와 반소(反訴)를 통해 전개되는 기억과 대항 기억의 대립과 갈등은, 기록된 역사에 혐의를 두고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여 실

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모색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기억전쟁은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과거를 수용하지 않고 체험기억을 근거로 자료를 모아 시시비비를 가리는 개인과 시민단체들이 증가했다. 학계는 물론 정부와 지배 권력층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다.

사실 기억은 문학의 중요한 질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문학적 서사도 역사처럼 기억을 주요한 소재로 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역사적 기억이 “공적이고 정당화된 기억”으로 생성된 집단의 기억이라면, 문학적 기억은 “공인되지 않은 내면적인 기억이나 상상”으로 형성된 개인의 기억을 말한다.<sup>1)</sup> 따라서 기억, 역사, 문학은 공히 서사를 매개로 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게 될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의 희곡 『죽음과 소녀 *La muerte y la doncella*』(1990)<sup>2)</sup>는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는 기억과 역사, 기억의 갈등과 투쟁, 화해를 시도하는 국가 기억 등의 ‘기억담론’의 제반 요소가 서사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기억 투쟁을 하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당대의 상황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는 문학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작가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독재(1973~1990) 이후 민주화 이행 시기, 이전 정권의 정치적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칠레의 고통스런 현실을 무대에 등장시킨다. 도르프만은,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집권 4개월이 지난 1990년 7월, 17년의 해외 망명 생활을 마치고 칠레로 돌아온다. 그가 목격한 조국은, 1989년 총선을 통해 군사독재를 종식시켰으나 피노체트의 영향력이 여전히 입법, 사법, 행

1)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16쪽.

2) Ariel Dorfman(2001), *La muerte y la doncella*, New York: Siete Cuentos. 앞으로 본문 인용 시 책의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3) 세 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파울리나/희생자, 헤라르도/정의, 로베르토/고문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파울리나의 목소리는 문학적 증언의 중요한 용례라고 할 수 있다. Allison Joyce Libbery(2013), “Breaking the Silence: Literary Testimony about Rape in Post-Dictatorial Chile”, *The Telling of Trauma: Narratives of Rape in Twentieth-Century Hispanic Culture*, Virginia: University of Virginia, p.199.

정부에 미치고 있었으며 군부는 사실상 그의 지휘 하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군사 쿠데타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카오스 그 자체의 혼란스런 공간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불안한 민주화 이행기를 맞아 칠레 사회가 겪고 있는 잔혹한 과거의 그늘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즉 어떻게 사건들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적 측면 즉, 독재와 고문 그리고 피압박 민중의 고통을 고발하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시각에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가운데 기억의 정치와 망각의 정치를 다룬 글도 있다.<sup>4)</sup> 하지만 기억 투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만큼 본고는 큰 틀에서 칠레의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나타난 개인 기억의 충돌과 갈등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기억 투쟁에 대한 문학의 재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II. 기억과 역사

역사는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이다. 이는 인간이 기억을 통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좀 더 발전시키면 기억을 매개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역사도 비슷하다. 기억을 매개로 인간의 삶의 방식을 탐구하고 기록한다. 이렇듯 기억과 역사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포스트역사주의가 도래하기 전까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는 기억보다 역사가 더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기억 연구는 전통적인 역사의 개념과 연구 방법에 대한 회의가 만들어낸 지형이다. 그럼에도 두 분야의 유사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사건을 탐구하고 기록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기억과 개념적 유사성을 띤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즉 현재라는 시

4) 송병선, 「독재 이후 사회에서 연극의 역할과 진실표현의 관계 -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를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37집, 2011, 432쪽.

점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과 이 부분에서 실제적 진실을 둘러싼 갈등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 주목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헬릿 카(E. H. Carr)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sup>5)</sup> 역사 연구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의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을 담보 보완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역사란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역사가의 시각과 집필 시점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시대마다 역사가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는 특정한 시대와 공간에 갇힌 유일한 사실 혹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담론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고고학’과 ‘계보학’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역사 담론을 형성하는 권력과 지식의 기본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권력에 유불리를 떠나 하나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의 상관 관계라고 규정한다.<sup>6)</sup> 결국 역사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한 과학이 아니며 시공간을 달리하는 지식 권력의 담론에서 재현되는 과정 혹은 가변적 결과물이라고 본 것이다.

기억의 충돌과 갈등 과정이 생략된 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세력 간에 화해는 성취되지 않는다. 하물며 동일한 세력 내에서 형성되는 기억 담론의 양상은 내부 분열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역사는 현재에 소환되어 재해석되듯이 기억 또한 현재의 장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국가의 공식 기억이고 오늘날의 기억은 역사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스트역사주의 관점을 빌리면 역사는 국가나 민족 서사를 지탱하기 위한 닫힌 체계를 의미하는 반면에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은 열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프리 K. 올릭(Jeffrey K. Olick)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관심을 두었던

5)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2006, 35쪽.

6)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08, 57쪽.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이 맺는 관계성에 주목한다.<sup>7)</sup> 후자에 의하면 “기억은 개인이 간직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결국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기억은 집단 존재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집단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줄”<sup>8)</sup>이라는 것이다. 사실, 집단을 벗어난 개인과 개인이 부재하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기에 그 둘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집단 기억이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인류사적 시각으로 고찰하면 집단 기억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족 서사가 되어 역사로 기록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억과 민족의 결합은 지배층이 피지배 집단에게 강요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역사에 의존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에르 노라(Pierre Nora)에 따르면 이러한 기억과 민족의 결합 형태는 20세기 들어 국가가 사회에 권력을 양도함으로써 약화되어 간다. 그는 ‘국가 = 민족’이라는 등식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국가 = 사회’라는 등식으로 대체되는가에 주목한다.

민족공동체의 자리를 사회가 대신하게 됨에 따라, 과거에 의한 정당화, 그러니까 역사에 의한 정당화는 미래에 의한 정당화에게 길을 양보하였다. 과거는 오직 인식되고 존경되어야 하고, 민족공동체는 봉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미래는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족, 역사, 기억이라는 세 용어는 그것들의 독립성을 회복하였다. 민족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소여(所與) 즉 쟁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되었고, 역사학은 사회과학이 되었으며, 기억은 순전히 사적

7) 모리스 알박스는 『기억의 사회적 구성들』(1925)과 『집단기억』(1950)을 통해 집단기억 연구의 창시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의 집단기억 개념은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과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켜 주창한 이론이다. 또한 개인기억과 집단기억 연구 못지않게 집단표상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다. 집단표상이란 대중적으로 공유된 과거의 상징과 의미로서의 집단기억을 말하며, 훗날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이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킨다.

8) 제프리 K. 올릭, 『기억의 지도』, 강경이 역, 옥당, 2011, 18-19쪽.

(私的)인 현상이 되었다. 이렇듯 기억과 일체화된 민족은 기억과 일체화된 역사의 마지막 현현(顯現)이었던 것이다.<sup>9)</sup>

노라의 표현대로 민족서사는 1930년대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탈신성화의 압력’ 아래 해체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같은 학자는 민족이란 기억이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이거나 원초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은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 하에서 종교적 세계관이 몰락하게 되자 상실감에 젖은 사람들이 실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특정한 언어만을 활용하여 저장과 삭제, 즉 기억과 망각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라는 것이다.<sup>10)</sup>

피에르 노라는 『기억의 장소』에서 프랑스라는 문화 지형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20세기에든 국가와 민족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의 다양한 정치체제들이 존속했기 때문이다. 파시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등에서 그 역사적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억이 역사의 대안으로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다양한 기억과 기록물이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의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홀로코스트를 둘러싼 1985~1986년 독일의 역사 논쟁으로 촉발된다. 이렇듯 주로 20세기 전쟁 기억을 둘러싼 실제적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공식 역사에 반하는 민간 기억의 저항과 갈등으로 인해 기억 담론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제 기억이 담론뿐만 아니라 기억의 주체가 국경을 넘는 탈영토화 현상을 낳고 초국적 공간에서 기억의 연대가 형성되기도 한다.<sup>11)</sup> 바야흐로 기억 담론의 전

9)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권 공화국, 김인중·유희수 외 역, 나남, 2010, 40쪽.

10) 제프리 K. 올릭 엮음, 『국가와 기억』,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 오름, 2006, 14쪽,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p.xviii-xix.

11)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09985&rid=2905#literature\\_contents](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09985&rid=2905#literature_contents) 임지현에 의하면 원래의 장소성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이주한 다양한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 서로 대면하고, 공존하고, 화해하고, 경합한다. 이러한 기억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 2차 대전의 기억은 탈영토화되고 국민국가 단위로 구성된 집단 기억은 탈국민화되기 시작했으며, 일제로

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죽음과 소녀』의 “시간적 배경은 현재이고, 공간적 배경은 칠레일 수도 있지만 독재체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떤 국가라도 될 수 있다.”<sup>12)</sup>는 도르프만의 전제는 문학적 기억의 탈영토화 가능성에 대한 제언처럼 읽힌다.

### Ⅲ. 기억의 갈등, 기억의 이행

#### 1. 강요된 침묵, 트라우마적 기억의 일상성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는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고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연임하며 무려 17년 동안 칠레를 통치했다. 그는 학살, 실종, 납치와 고문으로 점철된 ‘피의 독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기독교민주당(PDC) 출신의 파트리시오 아일윈 정부는 그가 남긴 독재의 유산을 과거 청산의 과제로 물려받게 된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옛 군부세력의 영향력이 현 정부보다 강한 상황에서 아일윈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화의 요구에 따른 국민들의 과거사 정리 문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아일윈은 레티히(Rettig) 위원회를 만든다. 도르프만이 「작가 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위원회는 죽음이나 죽음으로 추정되는 사건과 관련된 독재시대의 범죄를 조사할 뿐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었다. 군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아일윈의 이러한 전략적인 정치행위는 과거의 공포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sup>13)</sup>

---

2011년 12월 13일 뉴욕 퀸즈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뉴욕 거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한국에서 건너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합동 행사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혀 다른 역사적 환경에 격리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기억의 이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임지현, 「지구화 시대 국가주의와 기억의 정치: 기억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강의록 13쪽.

12) Ariel Dorfman(2001), *op. cit.*, p.11.

13) *Ibid.*, pp.87-88.

『죽음과 소녀』는 과거 독재정권의 압제로 체득된 원초적 불안감과 태동하는 민주체제에 문제를 초래할까 두려워 스스로를 검열하는 시민들의 수세적 침묵을 깨고 싶은 작가의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깊은 상처’를 다루기 위한 전략으로, 작품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울리나 살라스(Paulina Salas)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현재라는 무대로 소환하며 전개된다. 줄거리는 단선적이거나 작중 인물의 복잡한 심리 묘사는 우리에게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사건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우연성’에 기대어 시작된다. 자동차 바퀴가 핑크나는 갑작스런 상황에 몰린 파울리나의 남편 헤라르도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의사 로베르토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게 된다. 헤라르도를 내려주고 돌아가던 로베르토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조사위원회에 헤라르도가 임명되었음을 알고 마침 자신의 차에 있던 헤라르도의 스페어 타이어를 돌려주고 축하인사도 해줄 요량으로 헤라르도의 집으로 방향을 돌린다. 헤라르도의 아내 파울리나는 남편과 담소를 나누는 로베르토의 목소리를 듣고 15년 전 자신을 고문했던 의사라고 확신한다. 코냑을 마시고 잠든 로베르토를 제압한 파울리나는 그를 의자에 앉혀 밧줄로 묶고 재갈을 물린다. 소란 통에 깨어난 남편 헤라르도가 이 광경을 보게 되면서 이들은 진실을 찾아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며 기억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파울리나는 자신의 고통과 잊고 싶은 고문의 상처를 다시 기억의 분실로 꺼내며 기억의 언저리를 더듬어 간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세세하게 언급하기 어려웠던 고문의 순간을 소환하고 기억의 퍼즐을 조립해나간다. 학생 신분이었던 파울리나와 헤라르도는 쿠데타 직후 피난처를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을 돕다 사귀게 되었다. 당시 반체제 운동의 주요 인물이었던 헤라르도의 행적을 찾던 군부에 의해 1975년 4월 6일, 파울리나는 납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파울리나는 두 달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헤라르도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다. 이후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토록 원했던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과도기의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과거 청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시기에 우연히 자신을 고문한 의사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파울리나는 강요된 침묵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불안함에 떨어야 했다. 참혹했던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일상은 물론 무의식의 영역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 의사 로베르토가 자신을 고문할 때마다 틀었던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곡 <죽음과 소녀>를 듣게 되면 온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으며, 전기 성고문의 후유증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릴 때면 충을 들어 경계하는 등 극도의 불안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억은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들추어낸다. 목소리뿐 아니라, 그의 피부와 체취도 기억했으며 그의 말투와 행동 역시 모방할 수 있었다. 언젠가 찾게 될 의사에 관한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각인하며 증오의 세월을 견뎌냈고 그 서글픈 ‘희망’이 있었기에 잠들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납치되고 두 달이 지나 겨우 풀려난 파울리나가 헤라르도를 찾아갔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의지할 수 없었다. 군부를 지지했던 부모와는 이미 관계가 단절되었고 같은 여성이지만 엄마와 언니에게조차 성고문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의 남편이 된 헤라르도의 행동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파울리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라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고문 가해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녀와의 약속도 15년 전 과거의 일이었으니 묻어두자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트라우마의 폐해는 기억 주체들의 일상적 삶의 영역 깊숙한 곳에 수인처럼 머물러 있다. 과연 두 사람의 새 출발은 가능한가. “잊지는 말되 새로 시작하자”(66)는 헤라르도의 요청은 개인 기억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위해 묻어두자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이는 갓 태어난 민주정부가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과도기적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이행은 모순이며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였을까. 파울리나는 강요된 침묵을 깨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파울리나: 위원회의 당신들은 오직 죽은 자들, 말을 할 수 없는 자들만 상대하잖아. 하지만 난 말할 수 있어. 내가 한마디 내뱉은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어,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 기억에

몸서리치면서 살았어...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 할 말이 있어... 그러나 내 일을 하도록 날 내버려 두고 당신은 침착하게 위원회 일이나 계속해.(50-51)

군부세력과 민주세력 모두 사회적 혼란을 염려해서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한다. 침묵을 깨지 않으면 개인 기억이 공식 기억에 수렴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기억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기획된 망각의 늪에 빠질 위험이 도사린다. 그것을 예감했던 것일까. 목시적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잠잠할 수 밖에 없었던 파울리나의 발언의지는 예전과 달리 점점 견고해져간다. 더 처연한 기억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파울리나는 독재 시대의 고문 피해자이다. 경험 기억을 갖고 있는 시대의 증인이다. 그의 기억은 후세에 어떻게 남고 전해질 것인가. 이미 홀로코스트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가운데 생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들의 기억은 기념비, 박물관, 기록보관소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 유물처럼 남게 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혹은 매체를 통해 왜곡, 축소되거나 도구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알라이다 아스만은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개인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이행될 때 거쳐야 할 과정을 언급한다.

문화적 기억에는 자체 기구가 없기 때문에 매체와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생생하고 개인적인 기억에서 인위적이고 문화적인 기억으로의 이행은 기억의 왜곡, 축소, 도구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축소를 강화는 공공의 비판, 성찰, 토론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그렇다면 전술한 “공공의 비판, 성찰, 토론”이 불가능한 시기에 도르프만의 문학은 어떠한 방법으로 파울리나의 트라우마적 기억과 로베르토의 지배 기억을 재현할 것인가. 두 사람의 기억이 일치할 수는 없다. 기억은

14)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옮김, 그린비, 2011, 15쪽.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를 지속적으로 오가는 매개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뇌에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수행성 때문에 기억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기억 투쟁의 관건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기억이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갈등 단계를 지나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파울리나와 로베르토의 개별 기억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사람 사이의 기억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진실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 3자의 개입에 의해 기억은 조작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2. 기억 투쟁: 지배 기억 vs 피지배 기억

기억행위란 하나의 경험을 원래 형태로 완전히 복원하거나 재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과거일지라도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장하기 어려우며 온전히 지각하기도 불가능하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본 기억이란 균질적 단위로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불러들여지는 동일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sup>15)</sup> 문학의 경우도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를 때 객관적 기준을 정하겠지만 서술 자체가 회상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 회상의 원기억이 왜곡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서술 자체가 그 기억을 대변한다고 봐야할 것이다.<sup>16)</sup> 이처럼 기억행위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기억행위 자체가 현재의 욕망에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했다라도 기억주체 간의 기억행위는 늘 충돌과 갈등적 요소를 피하기 어렵다.

극 중에 의사로 등장하는 로베르토는 지식인이지만 군부 독재의 강요

15) 제프리 K. 올릭, 앞의 책, 53쪽.

16) 변학수, 앞의 책, 17쪽.

에 굴복했고, 이성이 있었지만 권력과 타협하여 피노체트 치하에 부역한 타락한 자로 지배 기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들어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과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수립한 국가들은 집단 기억의 역사를 수립하고 그들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항 기억의 존립을 용인하지 않았다. 로베르토는 조사위원이 된 헤라르도에게 과거의 분열과 증오를 마감해주길 기대하며 범죄자의 실명이 공개되는지 궁금해 한다. 헤라르도는 실명 공개가 불가하며 만약 시민들이 분노하면 사면령 철회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다시 묻는 로베르토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한다. 그제서야 로베르토는 갑자기 범죄자들을 모두 사형 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기 시작한다.

한편 로베르토가 자신을 성고문한 의사라고 확신하고 있는 파울리나는 그의 목소리, 체취, 피부, 차에서 발견한 슈베르트 사중주곡 <죽음과 소녀>의 카세트 테이프를 증거로 삼고 있다. 그를 결박하고 자신의 팬티를 벗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로베르토가 화장실에 갈 때 그의 지퍼를 내려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가해자에게 지난 날 자신이 받았던 치욕감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역전되었다. 이제 쌍방의 기억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전개된다. 피해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위원회 위원이자 자신의 남편인 헤라르도 앞에서 가해자를 심문하여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위원회가 법정에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 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헤라르도는 충을 들이대며 강압적 태도로 진술을 요구한다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과거 세력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총 앞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눈이 가려진 상태로 고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며 아내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한다. 로베르토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갈이 풀린 그는 파울리나는 전형적인 정신분열증상을 보이고 있으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고문으로 인한 병든 마음 때문에 환상을 본 것이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방문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헤라르도는 로베르토에게 파울리나가 원하는 자백을

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의사는 두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이 공모하고 있으며 자신이 자백하면 오히려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로베르토는 자신과 성분이 다르고 지난 시절 피해자와 같이 박해를 받았던 헤라르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헤라르도 역시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 그녀와 직접 합의하라고 요구한다. 로베르토가 두렵다고 말하자 헤라르도 자신도 역시 그렇다고 말한다. 처지가 다른 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아마도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 기억들의 대립과 반목은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과 화해라는 제도적 공간에서 권력자의 신뢰를 얻어 기억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만든다. 아직도 실효적 지배 세력인 로베르토는 새로운 권력인 헤라르도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다가 다른 대안이 없는 걸 깨닫고는 거짓 자백을 결심하고 헤라르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은 고문에 참여하지 않아 취조 사실을 모르니 파울리나의 녹음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드디어 파울리나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자백이 녹음되기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노체트 지지자로서의 지배 기억 담론의 흔적이 보인다. 로베르토의 아버지는 지주였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농부들이 그의 땅을 점령하는 바람에 심장 발작을 일으켜 중풍을 앓게 된다. 비밀 경찰이었던 형의 요청으로 로베르토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군사정권의 고문을 담당하는 의사가 되었고 이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로베르토: 우리는 전쟁 중이다, 나는 생각했지, 그들은 나와 내 가족을 죽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여기에 전체주의적 독재를 세우려 한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의사의 케어를 받을 권리가 있다.(72)

피노체트주의자들은 공산화 될 위협에 놓인 칠레를 구한다는 명분하에 아옌데 정권을 몰락시키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전체주의적 독재세력과 전쟁을 치렀다고 포장했다. 로베르토는 그의 인도적 의도가 변질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정치범들이 어느 정도의 고문을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다 그는 차츰 고문을 즐기게

되었으며 마침내 병적인 호기심으로 발전했다고 진술한다. 그즈음 파울리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환상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는 자신으로 인해 죽음에 몰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하며 이러한 자신의 고백이 참회의 증거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남은 여생동안 자신의 범죄사실이 누설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진술한다.

마지막으로 파울리나는 로베르토에게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유로운 의지로 진술서를 작성했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요구한다. 로베르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항하지만 결국 강압에 못 이겨 서명을 한다. 이제 약속한대로 로베르토를 풀어줘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파울리나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고 왜곡시켜 녹음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녹음한 내용이 로베르토의 자백에 이용되리란 것을 알아채고 그가 진범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녹음 속에 여러 개의 뒤틀을 쳐 놓았던 것이다. 그 중 결정적인 증거는 로베르트가 고문할 때 옆에 함께 있었던 인물의 별명에 관한 것이었다. 파울리나는 남편에게 그 인물의 별명을 ‘찬타’(el Chanta)라고 알려주었는데, 로베르토는 몇 차례에 걸쳐 ‘환타’(el Fanta)로 정정했다. 사실 파울리나는 헤라르도의 의구심처럼 혹시라도 로베르트가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녹음내용을 역이용하여 의사의 진술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고자 했던 것이었다. 로베르토는 진범이었다. 그녀는 고백의 대가로 그를 풀어줘야 하지만 총을 겨눈다.

파울리나: 당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죽이려는 게 아냐, 의사 양반. 당신이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죽이려는 거야, 빌어먹을. 난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만을 용서할 수 있거든.(80)

[...]

파울리나: 난 진실을 원해, 의사 양반. 진실을 고백하면 놓아주겠어.(81)

그녀가 로베르토에게 기대한 것은 처벌과 보상이 아니었다. 진실한 고백과 후회였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것이었다. 파울리나는 로베르트의 서명이 담긴 자백서의 사본을 간직하고 자했다. 파울리나의 말대로 의사의 자백은 헤라르도가 진실위원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또한 파울리나에게 그의 증언 기록은 거짓 역사의 고리를 끊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이었다.

도르프만은 「작가 후기」에서 과거의 수인이 되지 않고 과거를 되살리는 방법과 미래에 반복될 위험을 제거하면서 과거를 잇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sup>17)</sup> 헤라르도는 조사위원회의 한계를 인지하였기에, 독재시대의 범법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도덕적 처벌(sanción moral)”<sup>(29)</sup>만은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의 기억담론에서 도덕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나누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로베르토가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헤라르도는 파울리나에게 그만 잊으라고 요청한다.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후회와 반성을 거론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용서나 망각은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과오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전환기적 정의’를 세우는 과정과 일반적 인 국내의 정치의 중대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과오를 어떤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 과오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후회의 정치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중요문제로 등장했다.<sup>18)</sup>

제프리 K. 올릭은 과거의 유산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후회의 정치’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그는 집단적 차원의 공식사죄가 도구적 선전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공동서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보았다. 공식사죄는 개인이나 시민, 사회 조직이 떠맡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진정한 후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sup>19)</sup> 올릭이 베버의 ‘책임윤리’를 후회의 정치의 이론적 토대로 삼은 목적은 보복을 위한 보복이 아닌 앎과 인정이 이룬 조화 속에서

17) Ariel Dorfman, 앞의 책, 90쪽.

18) 제프리 K. 올릭, 「기억의 지도」, 231쪽.

19) 앞의 책, 244쪽.

희생자와 가해자가 아닌 그 자손들 간의 화해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sup>20)</sup>

덧붙여 올릭은 후회의 정치의 대표적인 예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사죄를 들고 있다. 하지만 헤라도르가 참여한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진정한 고백과 후회를 얻어내기보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화해를 조정했으며 또 국가 기억의 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일방적인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뿐이었다. 결국 칠레라는 국가 기억의 공간에 수용되지 못한 파울리나의 개인 기억은 가해자 집단의 후회나 사과 없이는 사회적 기억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는 문학적 기억의 차원에서 살펴볼 때 파울리나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개인의 상처가 아닌 수많은 ‘또 다른 파울리나들’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된다. 따라서 구성적 서사를 공유하는 기억의 공동체를 진정한 공동체라고 전제한다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일관된 구성적 서사에 쉽게 통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sup>21)</sup>

---

20) 앞의 책, 252쪽. 올릭은 베버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 후자가 어떻게 ‘후회의 정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그에 의하면 베버에게 “신념윤리는 그 동기는 존경할 만하나 현대의 합리적 세계에서 과학의 공헌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과학이란 가치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통합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념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위’는 실행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현실적 틀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면에 책임윤리는 세계의 윤리적 불합리성을 포용하며, 정치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이른바 ‘악마와의 협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239쪽) 하지만 베버의 이론은 “원칙대 기회주의도 아니고 윤리정책 대 현실정책도 아니다. 책임윤리는 윤리적 원칙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윤리적 원칙이 된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윤리적 원칙은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작은 단계들을 선호한다.”(ibid.) 베버의 ‘책임윤리’는 “그 어떤 윤리적 원칙도 없는 현실정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옹호하던 그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결과의 절대적 위계가 아니라 상대성을 생각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라는 주장이다.”(240쪽)

21) 앞의 책, 63쪽.

### 3. 개인 기억에서 사회적 기억으로

기억이 개인적 차원이라면 역사는 공식적인 차원이다. 개인 기억이 특수한 경험을 뜻한다면 공식 기억은 보편적 경험이다. 대부분의 기억연구에 의하면 개인 혹은 민간 기억이 공식 기억에 수용되는 순간 사회적 혹은 문화적 기억이 된다고 말한다. 민간 기억이 역사와 상반된다면 그 기억은 논쟁을 통해 수용되거나 거부된다. 주로 역사는 공식 기억과 진실 관계를 다루게 될 때 이를 ‘기억 투쟁’이라고 부른다. 역사를 관장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이다. 개인 기억이 공식 기억에 저항한다면 국가는 민간 기억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인류 역사는 국가가 기억을 관리하려고 했던 무수한 사례를 증명해준다. 스페인은 내전 이후부터 프랑코 사후 민주화 이행기 기간의 내전과 독재의 기억을 국가가 관리하려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의 대립은 첨예한 논쟁과 오랜 기간의 숙의를 통해 정치적 합의 도출과 과거사 청산이라는 목직한 궤를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였다. 스페인의 역사 논쟁은 다기한 이해관계로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2006년 ‘역사기억법’의 제정을 통해 이른바 ‘망각의 정치’에서 ‘기억의 정치’로 행보를 옮기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스페인의 사례에서 볼 때 역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극복의 첫 단계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릇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참회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사회적, 문화적 기억으로 전승케 할 때라야 가능하다.<sup>22)</sup>

---

22) 우리와 가까운 예로 위안부 문제를 들여다보면,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 식민지 시대의 주요 기억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김학순 할머니가 내밀한 고통의 기억을 밝힌 이후 시민들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의 합의가 발표되었고, 급기야 최근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일 합의는 국가가 민간의 기억에 개입한 예라는 사실이다. 역사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함 참회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는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며 역사적 정의 실현에 명운을 걸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의 외침을 멀리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죽음과 소녀』에서는 피노체트 독재체제가 종료된 후 전환기 과도 정부가 어떻게 민간 기억을 수렴하는가를 주목한다. 앞장에서는 피해자의 트라우마적 기억과 가해자의 기억 갈등을 통한 기억 투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들의 기억 투쟁 사이에 조정과 화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헤라르도의 태도를 통해 국가 기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헤라르도는 파울리나로 상징되는 민간 기억을 통제하여 공식 기억에 포함시키려 한다. ‘역사적 기억’이 현재를 과거의 억압 아래 두는 것이라면 ‘문학적 기억’은 과거를 현재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국가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사적 기억과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서술하는 문학적 기억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낸 차이이다.

역사적 기억은 집단의 특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보편적인 기억이다. 그러나 문학적 기억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보편적인 역사적 기억은 단수로 존재하고 객관적이지만 문학적 기억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단수이지만 전체로 볼 때는 항상 복수로 존재한다.<sup>23)</sup>

헤라르도는 로베르토와 파울리나 사이의 기억 투쟁이 전개되자 초조해하기 시작한다. 조사위원으로서 개인적 출세에 대한 세속적 욕망과 아내의 고문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 남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한다. 사건의 민낯을 밝힘으로써 일어날 파장과 민주정부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는 진실 은폐의 위기감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사회적 화합이라는 과제는 이윤배반적인 상황에 내몰린 막다른 선택으로 정치적 기획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통합되지 않은 상처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정한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도르프만 스스로 밝히듯 가장 큰 딜레마는 국민적 합의를 깨지 않고 어렵게 성취한 민주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어떻게 관련 쟁점들과 대면할 것인가이다.<sup>24)</sup> 이와 같은 위원회는 “죽음

---

이런 와중에 양국정부는 역사적 화해라는 미명하에 민간 기억을 공식 기억의 장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23)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53-54쪽.

24) Ariel Dorfman, *op. cit.*, p.91.

이나 죽음으로 추정되는 사례”(20)만을 조사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만을 다루도록 한정되어 있었다. 사망과 실종 사건만을 다룬다는 것은 파울리나처럼 살아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다. 게다가 공정한 재판 진행 의무를 지닌 사법부는 인적쇄신을 이루지 못해 지난 정권에서 일했던 재판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헤라르도는 지난 정권이 증거인멸과 날조를 통해 피고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인권 침해사례를 몸소 겪어왔음을 토로하였다. 로베르토의 자백을 받으며 부부는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다. 헤라르도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당처울 일들에 대한 걱정, 조사위원의 자리를 잃게 될 위험, 과거 권력이 회귀하게 될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 등의 이유로 파울리나에게 로베르토를 풀어주라고 압박한다. 결국 파울리나는 헤라르도에게 타협안을 내놓는다. 로베르토가 자백하면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군부의 통제 하에 있는 과도기적 민주정부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파울리나: 타협, 협상하지. 과도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닌가? 그들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허용하지만 경제와 군부를 장악하고 있잖아?(53)

헤라르도에게 다른 대안은 없다. 그는 로베르토에게 의뢰인처럼 대하겠다고 말하며 파울리나의 제안을 전한다. 헤라르도는 미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매우 정치적인 대답이다. 헤라르도는 파울리나와 로베르토의 기억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충돌과 갈등을 위원회라는 제도적 영역 안에서 정치적으로 조율하고자 했다. 이는 개인 기억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기억을 왜곡, 축소, 도구화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억의 변화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려준다.

개인에게서는 기억의 과정들이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심리적 기제의 일반적 법칙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 집단적·제도

적 영역에서는 이 과정들이 의도적인 기억 내지는 망각의 정치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sup>25)</sup>

결국 로베르토는 헤라르도의 제안에 따라 녹음 진술을 하게 되고 자백서에 서명한다. 그것을 근거로 파울리나는 명백한 증거를 얻었고 다른 거짓말까지 밝혀내었다. 하지만 고문 의사는 사죄하지 않는다. 자신의 진술 내용이 헤라르도의 지시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자백을 뒤집는다. 로베르토는 “우리가 고백을 꾸민 거요”(78)라고 말하고 파울리나의 과거 일을 알고 있는 남편의 제안대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사의 언술 속 “우리”는 자신과 헤라르도를 일컫는다.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사람과 민주정권에 몸담은 사람, 비록 다른 배경을 가진 세력이지만 칠레를 양분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 세력들이 추구하는 화합 이데올로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기억을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리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국가 기억의 경계를 지키려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sup>26)</sup> 파울리나가 방아쇠를 당겨 개인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순간, 헤라르도는 그녀의 행동을 제지한다.

헤라르도: 아, 파울리나...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어?

파울리나: 그런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거지. 왜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양보할 때가 되면 왜 우리가 항상 양보해야 하는 거지, 왜? 왜냐고? 이번엔 아냐. 한 번,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 심판하고 말거야. 잃을 게 뭐가 있어? 한 번 죽인다고 잃을 게 뭐냐고? 잃을 게 뭐야? 잃을 게 뭐냐 말이야?(82)

25)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15쪽.

26) 헤라르도는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기억을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울리나의 남편이지만 과거를 망각하지는 태도를 취하고 그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헤라르도와 로베르토는 공히 파울리나의 기억 투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동일한 입장에서 서 있다. Henry James Morello(2006), “In the Middle of Nowhere: Traumatized Characters in *Escuadra hacia la muerte* and *La muerte y la doncella*”, *Masking the Past: Trauma in Latin American and Peninsular Theatre*,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p.99.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며 온갖 수난을 함께 극복했지만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된 헤라르도와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는 파울리나의 입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다. 결국 파울리나는 새로운 공식 기억이 형성되는 시기에 개인의 정의 실현을 유예시킨다. 그녀가 언급한 지난 날 “우리”라는 아래로부터의 기억의 연대는 새로운 지배 권력인 헤라르도가 생성하는 국가 기억의 담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와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헤라르도는 파울리나의 고통과 조사위원의 역할 사이에서 모호한 자세를 취한다. 이는 과거의 로베르토처럼 가해자에 가까운 자세이다. 과거 기억을 정리하고 후대에 남길 미래기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곁에 있는 희생자로 하여금 또 다른 의미의 침묵을 강요했기 때문이다.<sup>27)</sup>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역사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기억들을 관리하여 한다. 민간 기억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식 기억으로 대체하겠다는 일방적인 의도이다. 새로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단일한 역사 서사라는 기억의 프레임을 독점하여 국가가 선호하는 사회적 기억을 만들고자 했다. 사회적 기억이란 공식 기억과 민간 기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로 갈등하는 두 기억들 간에 끊임없이 형성되고 소멸되는 협상의 산물이다.<sup>28)</sup> 따라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공식 기억이 민간 기억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사회적 기억으로 이행될 수 있다.

27) 첨언하면 과거의 로베르토가 고문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둔 것처럼, 현재의 헤라르도 또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Kim Euisuk, “Memoria, muerte y reconciliación nacional: una lectura psicoanalítica de *Viudas* y *La muerte y la doncella* de Ariel Dorfman”, *Hispanic Journal*, 2004, vol. 25, n° 1-2, p.180.

28) 임지현, 앞의 글, 6쪽. 그는 뒤이어 국가주의와 기억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도라는 위로부터의 의도주의적 관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만든 공식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연결되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역사적 기억으로 형상화하는 ‘서사적 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IV. 결론: 기억의 탈영토화를 위하여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는 피토체트 독재가 종료된 후 들어선 아일윈 정부가 칠레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과거 정부의 유산을 어떻게 청산하는가에 주목한 작품이다. 본고는 작품 분석을 위한 방법적으로 기억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살피고자 기억과 역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되짚어 보았다. 또한 기억 연구가 역사 연구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억과 역사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서사를 매개로 형성되며, 문학과 역사는 기억을 매개로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학 작품에 나타난 기억과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특정 사회 현상 속에 내재된 기억 투쟁 혹은 기억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었다. 기억과 역사의 문제에서 특히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지배 기억과 피지배 기억, 민간 기억과 국가 기억 등 기억 주체들이 상징하는 기억의 범주를 구별하여 활용하고 최근의 기억 담론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억, 문화적 기억, 기억의 탈영토화 개념을 차용하여 기억의 갈등과 연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본고는 도르프만의 작품에 나타난 기억의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되 문학이 기억을 대하는 방식, 즉 어떻게 기억의 문제를 구조화하고 재현하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작가는 어떻게 기억의 갈등이 생성되고 논의되며 사회적 기억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에 천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가 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작품이 칠레라는 기억의 장을 넘어 유사한 독재의 고통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된 점<sup>29)</sup>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미 문학이 제공하고 있는 초국적 기억 연대의 길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사로 치환된 문학적 기억의 탈영토화는 국가 권력이 국민 기억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행위에 저항하며 초국적 기억의 공간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학적 기억은 문학예술 고

29) Ariel Dorfman, *op. cit.*, pp.94-95.

유의 특질로 말미암아 원기억을 본래 형성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게 하여 국가 기억의 개입하지 않는 시공간에서 실제적 진실을 지키려는 ‘기억들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세계화시대의 탈영토화된 기억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여전히 국가 기억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개인 기억과 민간 기억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실천적 기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2008.
- \_\_\_\_\_,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8.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희숙 역, 나남, 2004.
-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 \_\_\_\_\_, 『반기억으로서의 문학』, 글누림, 2016.
- 송병선, 「독재 이후 사회에서 연극의 역할과 진실표현의 관계 -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를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37집, 2011, 432-454쪽.
-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옮김, 그린비, 2011.
- 오카 마리, 『기억·서사』, 김병구 옮김, 소명, 2004.
- 에드워드 헬릿 카, 『역사란 무엇인가』,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2006.
- 이성형, 「중남미 파시즘 논쟁」, 『창작과 비평』 59호, 1987.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전진성·이재원 엮음,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 제프리 K. 올릭 엮음, 『국가와 기억』, 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 오름, 2006.
- \_\_\_\_\_, 『기억의 지도』, 강경이 역, 옥당, 2011.
-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피에르 노라 외, 『기억의 장소』 1권 공화국, 김인중·유희수 외 역, 나남, 2010.
- Dorfman, Ariel, *La muerte y la doncella*, New York: Siete Cuentos, 2001.
- Kim, Euisuk, “Memoria, muerte y reconciliación nacional: una lectura psicoanalítica de *Viudas* y *La muerte y la doncella* de Ariel Dorfman”, *Hispanic Journal*, vol. 25, n° 1-2, 2004.
- Libbey, Allison Joyce, “Breaking the Silence: Literary Testimony about Rape in Post-Dictatorial Chile”, *The Telling of Trauma: Narratives*

*of Rape in Twentieth-Century Hispanic Culture*, Virginia: University of Virginia, 2013.

Morello, Henry James, "In the Middle of Nowhere: Traumatized Characters in *Escuadra hacia la muerte* and *La muerte y la doncella*", *Masking the Past: Trauma in Latin American and Peninsular Theatre*,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2006.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09985&rid=2905#literature\\_contents](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09985&rid=2905#literature_contents) 임지현, 「지구화 시대 국가주의와 기억의 정치」,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2016 (검색일: 2016.10.12.)

❖ ABSTRACT

Deterritorialization of Memory in  
*Death and the Maiden* by Ariel Dorfman

Kim, Chan-Kee · Hwang, Soo-Hyun

*Death and the Maiden*(1990), by the Chilean playwright Ariel Dorfman, directly addresses the issue of liquidating the past that the transient democratic government of Patricio Aylwin faced, the government established right after the end of the dictatorship of Augusto Pinochet.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zing the aspects of conflicts and discords between memories of individuals as reflected in the conversations between characters of the play. For example, we look into the effects of traumatic memories of Paulina, tortured and raped by the past government, on her everyday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er personal memory and the collective memory. We also look into the discourse of the dominating memory through the confession of the rapist doctor Roberto, and observe how Gerardo, a lawyer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exposes the truth of the case and mediates the conflict of the memories between the two characters. We uncover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tate memory as it tries to intervene in the strife in memories between assailants and victim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 concept of memory deterritorialization would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se problems.

Key Words : Ariel Dorfman, *Death and the Maiden*, memory and history, traumatic memories, politics of regret, deterritorialization of memory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